

시 **백재성**

무소유

무엇을 가졌던가
무엇을 잃었던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는

무엇을 더 가지려고
그리 발버둥치는 건가
얻지도 잃지도 않았으니
빈손으로 간들
그 무엇이 손해란 말인가

약력

- ▲문학세대 시 부분 등단(2009)
- ▲한행문학 행사문학상
- ▲전국행시백일장 최우수 작가상 수상
- ▲광주문인협회 회원
- ▲전(주)백제건설 대표이사



시 **김병순**

무등산 원효사

무등산 어머니 품과 같은 아늑한 산
그 속에 원효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원효의 이야기에 빗대어 얘기할 수 있도록
편안함을 갖춘 무등 무등 무등산

모두에게 알과 뒤
높음과 낮음이 없다는 무등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른다
모두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니
무등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원효대사의 이야기
무덤 속에서 시원한 물을 꿀물처럼 마셨다면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던
원효를 생각한다

깨달음- 모든 것은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해골 속의 냉수도 어두운 밤 물을 찾기 어려웠을 때
목이 말라 타는 듯한 갈증에 얼마나 시원했겠는가

약력

- ▲아시아서문학시단
- ▲광주문협, 아시아서문학회 회원



시조 **이복렬**

간장독을 열며

겨우내 봉인해 둔
질항아리 뚜껑을 연다

깊은 속 켈 수 없는
거망빛 맑은 우물

폐내도
마르지 않는
엄마하늘 거기 있다



약력

- ▲'문예시대' 신인문학상 시
- ▲'시조시화' 신인작품상 시조
- ▲해남 시조백일장 대상
- ▲국세가족 문예전 시조 부문 대상



수필

길

속속들이 가을이 거리에 들어왔다.
가로수 은행잎 우수수 앞다투어 가벼운 녀석들은 휘몰아쳐 돌고 흩어진 녀석들은 자동차에 올라앉아 가을을 실은 차도, 차에 올라탄 가을도 영문도 모른 채, 저만치 저 멀리 멀어졌다.

한참 후 낮은 거리 어느 한적한 곳에 내려앉았다.
그곳에도 몸을 털어내고 있는 나무가 있었다.

그곳에도 막 길 떠나려고 몸을 날리는 녀석들이 있었다.
새로운 곳을 향하여 바람에 몸을 얹은 채 긴 여행을 떠났다.
어디로 갈지 제대로 가는지 알 길이 없다.

끝내 자퇴서를 쓰고 돌아오는 길, 나도 아이도 말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내 고집이었다. 일단 등록부터 하자고 큰소리로 욕박지르기도 하고 살살 어르기도 하며 세상 슬픈 모습으로 회유했으니까. 아이는 대학에 가는 것은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거라고 했

송광임

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 전문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직하는 게 낫다고 했다. 진로 상담교사도 여러 차례 상담 후 뜻이 확고하다면 열심히 해보라는 응원까지 했다며 오히려 나를 설득했다.

나는 대학을 통하지 않고 가는 길이 얼마나 있겠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마지못해 한 곳에 원서를 썼다. 아이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망 있어 보이는 대학 OO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달포도 채우지 못한 채 웅한 캠퍼스를 지나쳐 정문으로 되돌아왔다. 수능 선물함이 채 포장지도 풀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는 주관이 뚜렷하다거나 개성이 강하다며 예뻐서 말하고 또 누군가는 부모 속도 모르고 자기 고집만 피운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자녀 문제에 있어 그런 걱정과 충고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상담사는 자녀를 믿어주고 기다려 주라고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조금씩 생겨나 자꾸 잔소리만 하게 되었다.

글자를 깨치기 시작할 때부터 '공부'는 오롯이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길만 생각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으로 가는 길은 애초부터 짜놓은 각본처럼 당

연한 수순이라 여겼다. 그래서 내 친구가 학교 가기 싫다는 아들을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않고 홈스쿨링을 시켰을 때 걱정이 되었다. 나의 상식과 고정관념은 틀림이처럼 굳어 있어 이해되지 않았다.

우연히 마주친 학교 자모는 남의 속도 모르고 OO는 어느 대학교에 갔냐며 캐물었다. 또 누구, 누구는 OO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묻지도 않은 정보까지 흘리며 심란하게 만들었다. 스무 해 가까운 시간과 들인 노력과 지원한 교육비가 아깝고 허무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도 타인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고 와닿지 않았다. 이미 다녀간 길 위에서 그쪽이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다 진장이 되고서야 발을 빼는 격이었다.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고 뒤돌아보며 두탈했다.

유난히 길눈이 어두운 나는 내비게이션의 친절함 안내에도 불구하고 분기점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행길에서는 능숙한 운전자도 분기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깜짝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후 들어오는 차량에 혼잡한 도로에서는 사고율도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안해 나들목에 원하는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고속도로 노면 위의 색깔 유도선을 만들었고, 이 개발로 인해 사고가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 직진만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분홍, 파랑, 초록, 주황색을 따라 미리 차선을 변경해서 가면 헤매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 우리네 인생길에도 목적지를 향한 뚜렷한 유도선이 있다면 깜짝이를 미리 켜고 속도도 줄이고 때론 쉬기도 하며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도통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했다.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그곳에서 무얼 하는지도 모르고 오직 애벌레 기동을 향해 올라갔다. 밝고 올라가느냐 발밑에 깔리느냐...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고 장애물일 뿐이었으며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위험을 기회로 바꾸었다.' 그때의 나는 호랑나비처럼 애벌레를 따라 기동을 향하라고 아이에게 종용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정석이라고 다그치며 그저 꼭대기만 오르면 된다고 했다.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은 애벌레 기동에서 내려와 과감하게 자신의 길을 찾았다. 어려서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전문학교 특수 동물

학과에 들어갔다. 학교생활을 너무나 즐겁게 하는 게 눈으로 보였다. 2년을 공부에 매진하더니 그렇게 거부하던 대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편입했다. 다른 아이들이 가니까 무조건 4년제만 고집한 나와 다르게 아이는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었다.

'노력하는 자 즐기는 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공자의 말처럼 본인이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학문을 탐구하다 보니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 호랑나비 애벌레가 자기의 몸 안에 있는 날개가 퍼질 때까지 고치 속에서 기다렸다가 하늘을 날 듯, 아이도 날개를 펴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아 훨훨 날아가기를 소원한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약력

- ▲광주문인협회 회원
- ▲국세가족 문예전 시조 부문 대상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왕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